

법의 날, 법조계 인사 간담회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

저와 정부가 하는 여러 분야의 일(개혁)은 법치주의 사회로 가려는 것입니다. 검찰도 더 이상 부당한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부당한 명령을 (검찰에)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문화가 바뀔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이 권위의 상징이거나 대통령 개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엔 법을 불편하게 여기며, 법이 힘있는 사람의 편에서 자신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자든 약자든 법이 우리 편이라고 느끼도록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